

서구,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오는 2027년까지 유지

정책과정 평등 참여, 돌봄·안전 구현 등 노력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또다시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됐다. 서구는 최근 정부 서울청사 대강당에서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을 체결했다.

서구는 지난 2012년 여성친화도시로 처음 선정된 이후 2017년 재지정에 이어 올해 또다시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지정은 2027년까지 유지된다.

여성친화도시 지역 정책과정에 성별 구분없이 주민 모두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구는 그동안 '함께 만들고 누리'는 여성친화도시라는 비전을 갖고 17개 마을공동체를 여성가족친화 마을로 조성하는 한편, 시민참여단의 적극적인 정책참여와 여성안심

택배보관함 설치사업,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등을 추진해 여성가족부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특히 마을공동체 '화삼골 따:앗'은 마을의 변화를 주도한 여성들이 돌봄, 일자리 등 마을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2016년 구성된 단체로, 안전골목 일대의 공·폐가를 커뮤니티 센터로 리모델링하고 틈새 돌봄, 여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우리골목 프로젝트에 앞장서고 있다.

서구는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고도화 TF 운영 ▲지역맞춤형 여성 일자리 창출 ▲여성친화 거점 공간 조성 ▲충족한 안전인프라 조성 ▲온마을 돌봄체계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실현을 위해 전 부서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여성가족부와 상호 협력을 통해 누구나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남구 "동료간 쌓인 감정 동료중재로 푼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행복한 일터 조성 및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직장 동료간 쌓인 불편한 감정을 동료 중재로 해소하는 '감정존중 지킴이' 제도 시행에 나선다.

남구는 "조직 구성원 다양화로 업무 처리 과정을 비롯해 단체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인식 및 수용 수준의 차이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구청 내 각 부서와 17개동 행정복지센터에 각각 감정존중 지킴이를 배치했다"고 밝혔다.

감정존중 지킴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는 요소를 동료들과 공유하면서 상호 존중문화를 선도하는 일을 담당한다.

특히 동료간 불편한 감정으로 상담을 요청할 경우 개별 티타임 등을 통해 당사자간 갈등 조율에 앞장서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현재 남구청 조직 내 감정존중 지킴이는 총 56명이다. 각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6급 팀

장이 맡고 있다. 6급 팀장으로 선정된 이유는 다양한 경험 및 노련함을 갖추고 때문이다.

최근 공식사회에 젊은 세대가 대거 유입되면서 기존 세대와 마찰 발생 시 중간자적 위치에서 양측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과도기를 경험했고, 직장 상사와의 갈등이 아닌 동료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형성될 경우에도 중간 관리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서다.

남구 관계자는 "감정존중 지킴이를 조직문화 혁신 게이트키퍼로 육성해 갈등 상황을 조기에 해소하고, 소통과 배려를 통해 행복한 직장문화가 더욱 확고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올해 직장 내 갑질 근절과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감정존중 지킴이 비롯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 변호사 제도, 갑질 실태조사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기만 기자

북구, 유망 중소기업 지원

광주 북구(구청장 문인)가 창업·벤처기업과 유망기술 보유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나선다.

북구에 따르면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부, 광주디자인진흥원, 광주경제고용진흥원과 협약을 맺고 '2023년 중소기업 특화분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자금난에 힘들어하는 유망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북구는 총 사업비 5억여 원 투입해 ▲지식재산 권리화 ▲브랜드 디자인 개발 ▲우수기술 시제품 제작 ▲작업안전·환경개선 ▲예비창업자 창업자금 등 5개 분야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특허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 특허권리 분석,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제작 등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을 지원한다.

또한 브로슈어, 카달로그, 시제품 제작, 시험생산 지원 등을 통해 디자인 및 제품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작업공간 개보수, 환기 시설, 소음방지시설 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예비창업자들에게는 창업 교육, 컨설팅 등도 실시한다. /서기만 기자



광주 동구(구청장 임택)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추진에 앞서 최근 양일간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례관리 역량강화 과정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동구청 제공

동구, '광주다움 통합돌봄' 추진 준비에 만전

광주 동구(구청장 임택)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추진에 앞서 최근 양일간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례관리 역량강화 과정 교육'을 진행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망이다. 주요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가사

▲식사 ▲돌봄 ▲건강 ▲안전 ▲주거 편의 ▲일시보호와 동구 자율 2대 사업인 ▲아픈 아이 긴급병원 동행 ▲방과 후 도서관 초등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실무자 역량 강화와 구와 13개 동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위한 ▲광주다움 통합돌봄 이해·운영지침 숙지 ▲통합사례관리 핵심 과업의 이해 ▲정신건강 위기

상황 사례관리(자살 예방 교육 포함) ▲광주다움 통합돌봄 지역지원 연계 방안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광주다움 통합돌봄 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 많은 주민들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광산구, 인생이모작지원 프로그램 개강

중장년 경력개발, 취·창업 교육과정 운영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 더불어민주당 노인복지관이 최근 중장년의 경력개발과 취·창업을 돕기 위한 '생생지락, Again(어게인)정춘' 인생이모작지원사업 프로그램을 개강했다.

더불어노인복지관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는 100세 시대를 대비해 '50+ 생애전환기' 중장년의 인생2막 재설계를 지원하는 배움의 장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전문 분야 경력개발을 위한 민간전문자격 배움 과정, 취미여가 과정, 인문학 과정 등 7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경로당, 마을복지관 등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행복복지파트너', 아로마테라피스트, 원예심리 힐링지도

사, 무릎팍 놀이활동가, 실버요리지도사, 만화교실, 신년엔 인생2막 생애재설계 아카데미 등이다.

각 교육 과정은 3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며, 전문 이론교육과 맞춤형 실습이 병행된다.

김용덕 더불어민주당노인복지관 관장은 "올해 다양한 인생이모작 교육 과정이 중장년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활력을 채우는 자양분이 되길 기대한다"며 "교육을 넘어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이어지는 인생 2막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생생지락, Again정춘'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더불어민주당노인복지관(062-959-9004)로 문의하면 된다. /서기만 기자

전투기 소음피해를 후손 대대로 물려줄 수 없습니다.

1/3

무안군민은 전투비행장 이전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영상자료
자세히보기

언론보도 +
[뉴스1 `21.2.2.] ▶민심탐방◀ "군공항 이전 무안군 회생 강요 안 돼... 국방부 나서라"
[뉴스1 `21.1.25.] 광주시 전남도 입장차 '땀방'...군공항 이전 '답보 상태'

범국민대책위원회 +
(*20.11.24.) 새마을지도자 광주 군공항

진실은 이렇습니다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위한 무안군민의 희생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자세히보기